



강종오 LG유플러스 모빌리티사업담당 상무(오른쪽)와 김응수 켄트로닉스 자율주행사업부문장 전무(TV속 왼쪽)가 원격회의를 통해 세종시 자율주행 실증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LG유플러스

LGU+-켄트로닉스사, 자율주행 기술 협력

“상반기 내 저속 셔틀 실증”

원격회의 통해 실무협의단 등 합의 내달 중 관련 품질시험·인증 마무리

LG유플러스가 지난해 8월 세종시와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 MOU를 체결한 데 이어 켄트로닉스와 기술 실증 사업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켄트로닉스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실증 사업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세종시와 함께 추진해 온 자율주행특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이다.

양사는 25일 LG유플러스 용산 본사와 켄트로닉스 판교 본사를 잇는 원격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실무협의단 구성·운영 등 세부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해나가는 데 합의했다. 궁극적

으로 주거단지를 저속으로 주행하는 자율주행 셔틀 실증을 목표로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LG유플러스는 세종시 자율주행 서비스를 위한 5G 통신망, 다이내믹 정밀지도, 고정밀 측위(RTK·차량 위치 cm단위 측정) 솔루션 제공 등의 역할을 맡는다. 주거단지 연계형 저속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실증 과제의 주관사인 켄트로닉스는 V2X(차량·사물 간 통신) 관련 기억장치와 애플리케이션 등 기술 지원을 한다.

양사는 조만간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운영을 위한 시스템 개발·검수를 마치고, 내달 중 관련 품질시험과 인증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세종시는 이르면 상반기 주거단지에서 자율주행 저속 셔틀 서비스 실증 운행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김나인 기자 silki@

LG헬로비전-강원테크노파크 MOU

이모빌리티 통합관제 플랫폼 구축 ‘시동’

지역 내 첨단 산업 다각화 등 협력

LG헬로비전과 강원테크노파크가 황성 첨단산업 클러스터 입주 기업을 위한 이모빌리티 통합관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모빌리티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기차 등 전력을 동력으로 활용하는 이동수단을 말한다.

LG헬로비전은 강원 테크노파크와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모빌리티 통합관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강원도가 산업 거점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LG헬로비전 영서방송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LG헬로비전 영업그룹장 강명신 상무, 강원 테크노파크 김성인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모빌리티 연동 표준 마련 ▲통합관제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역 내 첨단 산업 다각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김나인 기자

“월 87만원에 전기차 자유롭게 이용하세요”

(니로·쏘울)

기아차 전기차 구독서비스 ‘기아플렉스 EV 라인’ 론칭

기아자동차가 니로·쏘울 전기차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전기차 전용 구독 서비스 ‘기아플렉스 EV 라인’을 선보인다.

26일 기아차에 따르면 ‘기아플렉스 EV 라인’은 월 단위 요금 87만원(부가세 포함)을 지불하고 니로 전기차 또는 쏘울 전기차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추가로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월 1회 72시간 대여할 수 있는 기아차 최

초의 전기차 구독 서비스다. 서비스는 26일부터 실시한다.

또 기아차는 업계 최초로 전기차 무제한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옵션 상품을 마련하고, 이를 월 6만9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전기차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충전 부담을 낮췄다.

‘기아플렉스 EV라인’은 모바일 앱을 설치한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앱을 통해 계약-결제-예약-배송-반납의 모든 과정을 한번에 진행할 수 있어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양성운 기자 ysw@

기업형 메신저·화상회의·전자결제·클라우드 플랫폼...

IT기업, 中企에 원격솔루션 지원

삼성SDS

‘넥스오피스 메신저’ 6개월 무료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교육기관·중기에 무상제공

구글 ‘G스위트’ 6월까지 무료

네이버 ‘라인웍스’ 등 무료 배포

코로나19장기화로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회사가 많아지면서 IT 기업들이 각종 기술과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6일 IT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는 재택근무와 원격 협업을 위해 전 세계 삼성 임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자사의 기업형 메신저 ‘넥스오피스 메신저’를 6개월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넥스오피스 메신저는 실시간 채팅과 함께 다자간 영상회의, 순위순 화면 공유 등이 가능하며 대화 암호화, 비밀 대화, 발신 취소 등 다양한 보안 기능 제공으로 취약할 수 있는 재택근무 환경에서 기업 정보의 노출을 최대한 방지한다. 4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무료 사용 기간 후에는 기존 가격인 월 5500원에서 55% 할인한 2500원으로 1년간 제공한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기업용 협업 솔루션인 ‘팀즈’를 교육기관과 중소기업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팀즈를 통해 채팅, 화상 회의, 전화, 문서 공동작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로 협업하는 모습.

/마이크로소프트

업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구글도 원격 G 스위트 및 교육용 G 스위트 고객에게 화상회의가 가능한 G 스위트의 행아웃 미팅 기능을 오는 6월까지 무료로 제공 중이다. G스위트는 구글의 주요 소프트웨어를 담은 유료 서비스로, 화상회의, 실시간 공동작업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 고객은 14일간 무료체험 가능하다.

네이버는 화상회의와 전자결제 등 비대면 업무 지원을 위해 네이버의 협업 솔루션인 ‘라인웍스’와 원격 근무를 위한 그룹웨어 ‘워크플레이스’를 6월까지 무료로 배포한다.

또한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NBP)은 자사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는 중소기업 1만3000여곳(월 이용 요금 기준 200만원 이하)을 대상으로 3~4월 서

비 비용을 50% 인하해주기로 했다.

카카오페이는 3월 11일부터 6월 말까지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에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된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이스트소프트는 재택근무 시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협업 플랫폼 ‘팀업’을 6개월간 무상 지원한다. 팀업은 업무용 메신저, 그룹 피드, 클라우드 저장, 쪽지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는 중소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마케팅 통합 솔루션 ‘에드브릭스’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텔스’를 제공하며 중소기업 마케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지원에 나서고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LS그룹, 글로벌 사업에 전 계열사 역량 집중

“조직·인력 현지화... 해외사업 효율 극대화”

Advertorial Corner

케이블분야 최고 기술력 토대로 美·폴란드·베트남 등 공격적 투자 “해외시장 개척에 그룹 미래 달려”

LS그룹의 전 계열사가 함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글로벌 사업에 주력하고 나섰다.

LS그룹은 26일 중국, 아세안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그룹 차원의 지역전략을 수립해, 현지 진출한 계열사들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협력·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자열 LS그룹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연내달 성해야 할 제1의 목표에 대해 “글로벌 사업의 조직과 인력을 철저히 현지화하고 해외 사업의 운영 효율을 높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목표달성의 일환으로 LS전선은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 균형성장을 강조한 ‘2030 글로벌 비전’을 발표했다. 해외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조직 내 글로벌사업본부를 신설하고 북미·유럽·동남아 진출을 꾀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에 그룹의 미래를 걸겠다는 의미다.



LS전선 동해사업장에서 HVDC 케이블을 운반하고 있다.

/LS전선

실제 올해 LS그룹에서 승진한 신규 임원들 중에는 LS전선의 인도 법인장, 해저 글로벌 영업부부장, E1의 해외영업부부장, 트레이딩 부부장 등 각 회사에서 해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들이 많다. LS그룹은 올해 전 세계적으로 시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전력인프라·스마트에너지·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핵심 기자재 및 기술 공급과 해외 투자 확대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LS 주요 계열사들은 글로벌 기업들이 선점하고 있는 초전도케이블, 마이크로 그리드, 초고압직류송전(HVDC) 등 시장에서 에너지 효율 기술 상용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LS전선은 초고압·해저·초전도 케이블 분야 최고의 기술력을 토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폴란드·베트

남·미얀마 등에 활발히 투자하며 해외 진출을 통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LS전선은 2018년 글로벌 ESS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북미 최대인 미국 파커 하니핀의 EGT 사업부 생산 설비 및 인력 등 유무형 자산 일체를 인수하는 영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LS전선은 전남 영암군에 구축되는 총 설비용량 93MW급 ESS 연계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사업자에도 선정돼, 지난해 6월 대명에너지 본사에서 1848억원 규모의 EPC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또 다른 계열사인 LS니꼬동제련은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대응해, 제련 공정에서 발생하는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제련 효율을 최적화하는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나서는 등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